

지역 소식통

삼례생활문화센터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완주 삼례생활문화센터(센터장 김미경)가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한다.

14일 완주 삼례생활문화센터(완주문화의집)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문화생활은 문화예술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네이버밴드(완주문화의집 삼례생활문화센터)에 업로드하면 수강생과 주민들이 집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노래교실, 라인댄스, 색소폰, 오카리나, 요가, 우쿨렐레, 난타, 줌바댄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센터와 함께 지역 예술 강사가 영상을 촬영, 제작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집에만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온라인 실황 공연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공연 관람을 하지 못하는 완주군민을 위해 온라인 실황 공연을 기획했다.

14일 회관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기획공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한 문화생활 감소 문제 해소와 문화예술 행사 취소나 연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공연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사랑방 '꼭' 온라인공연 아쿠아 뮤지컬 '삼어가 나타났다'는 레이저쇼, 버블쇼, 상어 체조, 공굴리기, 버블 체험 등 복합 퍼포먼스 뮤지컬 공연이다.

4월 22일 오후 7시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OH5i2AJW4NJDcMI9U0Y0JQ)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획공연 실황 영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역 농산품 팔아주기 나서야”

정철우 완주 부군수, 14일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다각적·선제적 방안 강구” 당부

완주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의 이중고에 처한 지역 농산품의 판매 촉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철우 완주군 부군수는 14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역대책반 추진 상황을 비롯한 해외입국자 안전보호업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우리 농산품의 판로가 막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 농산품 팔아주기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지역 농산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다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며 거듭 대책 마련을 피력했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지역 농산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다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며 거듭 대책 마련을 피력했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군수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항목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기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본격 가동

코로나19 사태로 농번기 인력난 발생...인력지원 조직 연계 활동
고산·화산·삼례농협 등...농촌 일손 필요시 지원 문의 가능

완주군이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영농철 일손 부족을 위해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14일 완주군은 군청 내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본격 가동하고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에 설치한 상황실은 완주군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와 농작업대행단, 농업기술센터 일손돕기추진단 등 기관별 인력지원 조직을 연계하게 된다.

현재 봉동읍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설치된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농

촌인력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5명으로 구성된 농가인력지원단을 연결하고 교통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인력수급은 물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산, 화산, 삼례농협에 설치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는 신규 영농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중개에 따른 실습교육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고, 고산농협에서는 추가로 농작업대행단을 운영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는농촌일손돕기추진단이 구성돼 자원봉사센터나 공공기관을 연결 일손돕기 계획을 세우고, 추가인력 요구시 군부대에도 요청하여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은 이 모든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김제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김제시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총 261,600필지이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m당 가격을 기간 내에 직접방문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부동

산공시가격알리미 : www.realtyprice.kr)으로 열람하고,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김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실시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 공시한다.

김제시는 지가 형성 요인 등 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의견 제출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방문 및 유선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접수 창구(☎ 540-3749)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심미란)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육묘 시기를 앞두고 벼 종자소독과 육묘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종자로 감염되는 키타리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를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못자리 피해를 줄이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볍씨소독 전 소금물 가리기를 실시하여 충실한 종자를 골라야 한다.

소금물 가리기는 메벼는 물20L당 소금 4.2kg, 찰벼는 물20L당 소금 1.3kg 희석하면 된다.

종자소독은 자가채종 종자를 포함해서 보급종까지 30℃정도의 물에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은 지난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소인 김제여자중학교를 찾아 '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홍보에 앞장섰다.

‘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김제시 요촌동, 투표 참여하는 관외 시민 대상 홍보 펼쳐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은 지난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소인 김제여자중학교를 찾아 '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홍보에 앞장섰다.

이날 캠페인은 김제시 관내 정주민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고 인구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관외 시민에게 안내 전단지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온 관외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을 장려하고 김제시 전입 시 누릴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요촌동은 캠페인 진행 이외에도 자체 SNS 채널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김제시 인구 유입

시책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김제시에 실거주하고 있으나 주소가 미 전입된 시민을 조사하여 인구 유입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인구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김제시 전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전입 이사비 및 장려금,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청년주택수당 등이 있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을 맞아 관외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심미란)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육묘 시기를 앞두고 벼 종자소독과 육묘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종자로 감염되는 키타리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를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못자리 피해를 줄이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볍씨소독 전 소금물 가리기를 실시하여 충실한 종자를 골라야 한다.

소금물 가리기는 메벼는 물20L당 소금 4.2kg, 찰벼는 물20L당 소금 1.3kg 희석하면 된다.

종자소독은 자가채종 종자를 포함해서 보급종까지 30℃정도의 물에

“올바른 종자소독으로 벼 키타리병 예방하세요”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심미란)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육묘 시기를 앞두고 벼 종자소독과 육묘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종자로 감염되는 키타리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를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못자리 피해를 줄이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볍씨소독 전 소금물 가리기를 실시하여 충실한 종자를 골라야 한다.

소금물 가리기는 메벼는 물20L당 소금 4.2kg, 찰벼는 물20L당 소금 1.3kg 희석하면 된다.

종자소독은 자가채종 종자를 포함해서 보급종까지 30℃정도의 물에

종자 소독약제를 타고 48시간 정도 온도를 유지해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키타리병을 방제 할 수 있다.

종자소독이 끝나면 소독약제를 씻어내고 볍씨받이기를 이용하여 하투나 이를 정도지나 1~2mm 정도 발아한 상태로 파종하면 된다.

파종 후 육묘상자 쌓기를 할 때는 15단 이하로 쌓아서 출아 후 묘가 심하게 눌리지 않게 해주고, 너무 밀폐하면 가운데 부분이 고온장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환기가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기온이 높고 미소독 보급종 공급이 많아 종자소독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